

2023. 4. 3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

도시계획과장	김용학	2133-8305
종합계획팀장	좌승호	2133-8317
담 당 자	장영준	2133-8323
	이선용	2133-8322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4쪽

오세훈 시장, 경부간선도로 상부공간 공원화 착수 ...한남에서 양재까지 최대 7km에 이르는 '서울 리니어 파크' 조성

- 서울시,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본격화...상부공간 활용구상 용역 통해 공간 구상안 제시
- 지하화 상부공간, 녹지 및 복합문화공간으로...강남 도심 동서 지역 연결·공간재편 기회
- 서초IC·양재IC 등 대규모 가용지, 서울의 상징성 담은 미래 거점 공간으로 조성
- 충분한 시민·전문가 의견 수렴·검토 과정 통해 연내 활용 구상안 마련·후속 절차 추진

-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,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.
- 서울시가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. 지난 1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-국토부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로드맵이 구체화 되면서, 시는 상부공간의 활용방안 또한 선제적으로 구상하겠단 목표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.

- 서울시 구간인 양재~한남(7km)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전체 사업 중에서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핵심 구간이다. 시는 1970년 경부간선도로 최초 개통 이후 50년간 단절됐던 강남도심 내 동서 지역이 연결되면서 도시공간 재편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.
- 이번에 착수한 용역은 지난해 경부간선도로 기능고도화 검토 결과와 연계해 도로 상부공간의 전략적 활용방안 등 이 일대의 통합적 공간구상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.
 - 서울시는 지난해 도로 지하화 관련 전문가 논의, 도로 기능고도화 검토 등을 통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구상안을 마련한 바 있다. 또한, 올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(LIMAC) 타당성 조사, 서울시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중심도 지하도로(양재~반포) 사업을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.
- 이번 용역에서는 ①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이후 상부공간을 녹지 및 일반도로화,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②서초IC, 양재IC 등 대규모 가용지를 상징성과 경쟁력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 ③롯데 칠성 부지 등 주변 개발사업지와의 계획적 연계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.
- 이번 공간구상을 통해 연장 7km 규모의 선형공원, ‘(가칭)서울 리니어 파크(Seoul Linear-Park)’의 조성방안 또한 마련된다. 70년대부터 급격히 추진된 개발로 인해 녹지공간이 늘 부족했던 강남 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쉼터가 생길 전망이다.

-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부공간에 공원을 조성한 사례는 이미 해외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. 지난 10월 오세훈 시장이 방문한 마드리드의 ‘리오공원’ 등이 지역단절 극복, 녹지·여가 공간 창출, 지상·지하의 입체적 활용 등 다양한 효과를 증명하며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〈 마드리드 리오공원 〉



- 사업기간: 2004~2015(상부공원 07~'15)
- 사업규모: 8km, 약 11만㎡
- 도입시설: 공원, 노유자·체육·여가시설, 매점 등
- 사업성과: 도로로 단절됐던 공간을 수변공원으로 탈바꿈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상 교통 문제를 해소한 모범사례로 꼽힌다.

- 아울러, 서초IC(8.3만㎡), 양재IC(7.3만㎡) 등의 대규모 가용지의 경우 서울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담은 한편, 혁신적 디자인,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거점 공간으로의 조성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.
-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도심 속 허파와 같은 녹지공간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생활의 핵심이다”며 “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